

# 치앙마이 달군 열정...광주FC 우승꿈 영어간다

동계전훈 캠프 꾸리고 최고의 환경서 훈련...선수들 입만 열면 "우승" 브라질 듀오 가브리엘·빅톨, 이적생들 광주 '원팀 문화' 완벽 적응 이정호 감독 "천천히 올리고 있다, 길게 보고 긴 플랜으로 가겠다"

광주FC의 우승꿈이 태국 치앙마이에서 영어로 가고 있다. 2023년 최고의 시즌을 보냈던 광주는 지난 3일 새로운 시즌을 위해 다시 스파이크를 조여 땀. 선수단은 치앙마이에 동계 전지훈련 캠프를 꾸리고 2024년을 위한 담금질을 이어가고 있다. 최고의 환경에서 절정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광주의 훈련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선수단이 숙소 사용하는 로얄 치앙마이 골프 리조트는 국내 축구팀들이 즐겨 찾는 훈련지다. 숙소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축구장이 마련돼있고, 잔디 관리도 바로바로 이뤄지면서 선수들은 좋은 여건에서 마음껏 훈련하며 기량을 점검하고 있다. 날씨도 최상이다. 치앙마이의 1월 날씨는 낮기온이 30도에 육박하지만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초가을 날씨를 보인다.

광주는 기온이 떨어지는 시간에 맞춰 오후 4시부터 외부 훈련을 하며, 따뜻한 날씨 속에 부상 염려 없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쉬는 시간에는 푸른 골프장 전경을 보면서 힐링할 수 있는 환경은 덤이다. 골키퍼 이준은 "훈련 장소가 정말 좋은 것 같다. 축구에만 집중할 수 있다. 숙소 경지도 좋다"고 만족감을 보였다. 선수들 자신감도 넘친다. 지난 시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3위'를 목표로 해서 그 꿈을 이룬 선수단은 '우승'을 입에 달고 있다. 오로지 축구만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서 정상에 향한 광주의 전지훈련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광주에서 세 번째 시즌을 앞둔 이정호 감독에게도 만족스러운 시간이다. 이정호 감독은 "2022년에 K리그2에서 우승하면서 3백으로 경기를 했다면 2023년 동계 시작할 때는 4백으로 바꿨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패턴으로 가고 있는데, 아직은 부족하지만 선수들이 작년보다는 조금 더 잘 따라오는 느낌이다"며 "기존에 있던 선수들이 새로운 선수들한테 서로 코칭하고 알려주고 하면서 수월하게 훈련이 진행되고, 시너지 효과가 난다. 광주의 큰 뼈대는 남아있다. 큰 축이 기동처럼 잡고 있다. 큰 나무 뿌리가 그대로 있어서, 가지가 잘 자라는 느낌이다"고 동계훈련 중간 평가를 했다. 올 시즌을 앞두고 광주 선수단 구성에 변화가 있다. 지난 시즌 국가대표로 발돋움한 이순민, 장신 수비수 아론이 대전 유니폼을 입는 등 떠난 선수들이 있다.

하지만 안영규가 다시 한번 주장을 맡아 선수단을 이끌고, 3위 주역들이 대부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정호 감독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들이 2024 시즌 전력 큰 틀을 유지한 가운데 새 얼굴들도 합류하면서 광주라는 나무는 더 많은 가지를 뻗치고 있다. 새 외국인 공격수로 '브라질 듀오' 가브리엘과 빅톨이 적응을 끝내고, 새 팀의 전술을 빠르게 흡수하고 있다. '루키' 문민서, 안혁주도 아마추어티를 벗어내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고, '독일무대'에서 활약했던 최경록도 옛 스승 이정호 감독과 재회해 새출발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예비역' 여봉훈, 김포FC 임대 영입됐던 조성권도 광주로 돌아왔다. 박대준, 정지용, 변준수, 김진호 등 이적생들도 광주 특유의 '원팀' 문화에 젖어 들면서 주전 경쟁을 위한 위망업을 끝냈다. 올 시즌 광주는 리그와 FA컵은 물론 아시아 챔피언스리그까지 동시에 준비해야 한다. 올 시즌을 생각하면 마음이 급하지만 이정호 감독은 "천천히 멀리 가겠다"는 각오다. 이정호 감독은 "월요일 한 번, 화요일 두 번, 수목 금토 한 번 그리고 일요일 휴식 일정으로 1주일을



광주FC 선수단이 태국 치앙마이 로얄 골프 리조트 축구장에서 미니 게임을 하면서 훈련을 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보내고 있다"며 "올해는 대회가 하나 더 늘어서, 7월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도 치러야 한다. 급하다고 해서 운동을 많이 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얼마만큼 훈련을 하고, 훈련 목적을 가지고 하느냐가 중요하다. 기존에 해왔던 것을 그대로 하면서 부상을 당하면 안 된다. 시즌이 아직 많이 남았으니 천천히 올리고 있다. 길게 보고 긴 플랜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2022년에 몸을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했다면, 동계훈련 개념을 바꿨다. 주기를 했다. 선수들과 코칭스태프 반응도 좋다. 운동을 많이 하는 것

보다는 주기화를 시켜서 하면서 훈련을 하도록 하자고 했다"며 "단 훈련 시킬 때는 세팅을 다 해놓고 빠르게 진행하는 방식이다. 지루하지 않게 알차게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 서로 믿음을 주는 것이다. 훈련, 휴식 스케줄을 미리 준다. 선수들이 익숙해져서 프로 선수들처럼 잘하고 있다. 나도 선수들도 믿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시즌 위망업 무대로 치앙마이를 선택한 광주는 29일 이곳에서 훈련을 마무리한 뒤 2월 4일 제주에서 본격적인 실전 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태국 치앙마이=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에 새로 시작하는 '예비역' 여봉훈(왼쪽)과 '이적생' 최경록이 나란히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신인의 마음으로...광주 기대 한몸에 받는 새 얼굴 여봉훈·최경록

여, 지난해 10월 전역 전훈 새출발 최, 독일무대 활약한 'K리그 신인'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등 활약 기대

광주FC에 '특급 신인'이 떴다? 지난 시즌 3위라는 최고의 성적을 낸 광주는 태국 치앙마이에서 '우승'을 외치고 있다. 우승을 위한 여정에 새 얼굴들이 있다. 신인은 아니지만 "신인의 마음"이라는 두 선수, 여봉훈과 최경록도 눈길을 끄는 새 얼굴이다. 여봉훈은 안동고와 광주대를 거쳐 2017년 광주 유니폼을 입은 8년 차 선수다. 군복무를 위해 떠나 있던 그는 지난해 10월 말 전역해 복귀 후 첫 동계 훈련을 소화하고 있다. 광주 원클럽맨이지만 군대에 다녀오는 동안 팀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만큼 여봉훈은 새로운 팀에서 새출발하는 신인의 기분이다. 최경록은 독일 FC장크트파울리 유소년팀에 입단해 바이어04레

버쥔(분데스리가), 카를루스SC(분데스리가 2)에서 활약했다. 해외 무대에서 좋은 활약을 했지만 K리그는 처음인 'K리그 신인'이다.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두 사람은 어느새 '단짝'이 됐다. 여봉훈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선수생활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최경록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 여봉훈은 "같이 외국에 있을 때 올림픽 대표팀에 차출된 적이 있다. 짧게 있었지만 그때 친분이 있었다"며 최경록을 먼저 챙겼다. 최경록은 "원래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인데 봉훈이는 편안했다.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적응의 시간을 끝낸 두 사람은 본격적인 시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봉훈은 "와서 보니 많은 게 바뀌었다. 팀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고, 밝고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훈련하고 생활하고 하는 게 정말 좋다"며 "스태프분들이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주시려고 하고 선수들은 거기 맞춰서 밝고 긍정적으로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경록은 "봉훈이도 있고, (이)민기형도 친분이 있다. 다들 잘해줘서 적응은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 했다. 최경록에게는 또 다른 반가운 얼굴이 있다. 아주 대를 중퇴하고 해외로 떠났던 그는 대학교 은사로 이정호 감독과 인연이 있다. 최경록은 "감독님이 10년 전하고 똑같으시다. 다만 축구적으로 많은 부분이 달라졌다"며 "감독님하고 계속 소통해 왔다. 내가 좋은 퍼포먼스 보일 때 전화하고 격려해주셔서 거리감은 전혀 없었다. 감독님이 같이 와서 하지도 말씀도 많이 하시고, 나도 한국 들어가면 같이 하고 싶다고 말씀드리기도 했다"고 은사와의 재회를 이야기했다. 신인처럼 적응에 우선 초점을 맞췄던 두 사람이지만, 광주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까지 동시에 달리기 위해서 이들의 활약이 필요하다. 두 사람은 기대 감 속에 팀의 승리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는 각오다. 여봉훈은 "광주에서 땀 때 점유율보다 기동력적인 부분 수비 상황이 많았는데 새 전술을 접하면서 기대가 된다. 수비보다는 볼을 소유하면서 동료와

소통하면서 만들어가는 작업이 흥미 있고 재미있다. 하루하루 너무 재미있고 행복하다"며 "팀 기운이 너무 좋다. 분위기는 진짜 무시 못한다. 기운이 너무 좋아서 올해 팀이 일을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이어 "팀이 원하고, 감독님이 원하는 축구를 소화하기 위해서 매일 노력하고 있다. 그것을 잘 해내는 게 우선이다. 내가 잘 한다고 하는 기동성이나 수비적인 부분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 감독님이 원하는,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플레이로 팀에 기여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최경록은 "광주로 오게 된 가장 큰 계기는 감독님도 있지만 내가 추구하는 축구와 감독님이 추구하는 축구가 비슷하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축구를 할 수 있어서 흥미를 가지고 기대하고 왔다"며 "개인적으로 좋은 축구는 골대까지 어떤 방식으로 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광주는 빌드업을 통해서 많은 터치를 하고, 볼을 소유하고 골대까지 간다는 부분에서 내가 좋아하는 축구다"고 설명했다. /태국 치앙마이=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지소연, '여자축구 최고 리그' 미국으로...시애틀 입단

잉글랜드 무대에서 이적

한국 여자축구 간판 지소연이 국내 실업축구 WK리그를 떠나 세계 최대 무대로 평가받는 미국여자프로축구(NWSL) 시애틀 레인FC에 입단했다. 시애틀 구단은 25일 홈페이지를 통해 지소연과 2025시즌까지 동행한다고 발표했다. 시애틀은 "수원FC와 이적료 합의를 마쳤다. 지소연은 비자를 발급받는 대로 팀에 합류해 프리시즌을 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계약이 구단 역사에서 중요한 순간이라며 지소연이 잉글랜드와 우리나라 무대를 거쳐 이룬 성과를 조명했다. 로라 허비 감독은 "지소연은 '검증된 승리자'다. 다양한 방식으로 그라운드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는 선수"라며 "우리 팀에 데려올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2011년 일본 고베 레오네사에서 프로에 데뷔한 지소연은 2014년 한국 여자 선수 최초로 잉글랜드 여자슈퍼리그(WSL)에 진출해 리그 6회, 잉글랜드 드래프트컵 4회, 리그컵 2회, 커뮤니티 실드 1회 등 여러 차례 우승을 경험했다. 2023 국제축구연맹(FIFA) 호주·뉴질랜드 월드컵



드컵을 위해 대부분이 WK리그인 대표팀 선수들과 더욱더 호흡을 맞추고 WK리그 흥행을 이끌고자 했던 지소연은 2022시즌 수원FC의 유니폼을 입고 국내 무대에 데뷔했다. 지난 시즌 WK리그 미드필더상을 받은 지소연은 여자 축구대표팀의 대들보로서 A매치 154경기에서 69골을 넣으며 한국 남녀 선수를 통틀어 최다 경기 출장, 최다 득점 기록을 쓰고 있다. WK리그에 온 지 2시즌 만에 다시 해외 진출을 선택한 지소연은 국내에서는 우승 트로피를 들지

못했다. 지난 시즌 수원FC를 이끌고 챔피언결정전까지 올랐으나 11연패의 위업을 달성한 인천 현대건설의 벽을 넘지 못했다. 더불어 이번 이적으로 지소연은 유럽 여자축구 최고 무대로 꼽히는 잉글랜드와 미국 무대를 모두 누빈 선수로 한국 선수로 기록됐다. NWSL은 12개 팀이 경쟁하는 WSL과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수준 높은 여자축구리그로 평가받는다. 더불어 가장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최대 규모 리그로도 꼽힌다. 현재 14개 팀이 참가한다. /연합뉴스

## 두산, 홍건희와 최대 24억5천만원 계약

내부 FA 2+2년 선수 옵션 포함 2020시즌 KIA서 트레이드 활약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가 자유계약선수(FA)로 풀려난 오른손 불펜투수 홍건희(31)를 붙잡았다. 두산은 25일 홍건희와 계약기간 2+2년에 최대 24억5천만원(계약금 3억원, 연봉 총액 21억원, 인센티브 5천만원)에 사인했다고 밝혔다. 두산은 "첫 2년간 계약 총액은 9억5천만원"이라며 "2년 계약이 끝난 뒤에는 2년 15억원의 선수 옵션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홍건희는 2011년 신인드래프트 2라운드 지명을 받아 KIA 타이거즈에 입단한 뒤 2020시즌 도중 두산으로 트레이드됐다. 홍건희는 두산 유니폼을 입고 237경기에서 12승 24패 39홀드 44세이브 평균자책점 3.46을 거뒀다. 프로 통산 성적은 403경기 21승 44패 49세이브 44홀드 평균자책점 5.10이다. 두산 관계자는 "4년간 꾸준히 불펜의 중심을 잡아왔기 때문에 팀에 꼭 필요한 선수라는 전제로 협상을 진행했다"면서 "앞으로도 마운드 위와 아래



모두에서 좋은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건희는 "계속해서 두산 유니폼을 입게 됐는데 마음가짐이 새롭다"면서 "오래 기다리게 한 만큼 마운드 위에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는 것만이 목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